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illegible]

朝鮮人의 胸中 嚴肅한 沈默

日本政治家여 公等은 果然 朝鮮人의 胸中을 察乎아否乎아 이제 公等은 朝鮮을 掌中에 保有한지 임의 十有餘年이라 勿論 其間에 公等은 充分한 報告와 治足한 材料로 朝鮮人의 心事를 少毫의 遺憾이 업시 硏究하며 調査하얏슬것이니 이를 察치못한다하기 勿論不能하며 또한 公等은 吾人보다 歐米의 文化를 四五十年이나 先에 受하야 理知는 발서 優秀한 發展을 得하얏스며 心情은 발서 醇美한 發達을 遂하얏고 道德이나 習俗은 임의 文明人의 厥致를 表하얏나니 그 理知와 心情과 그 道德으로 엇지 吾人의 胸中을 察함에 何等의 不足과 何等의 未洽이 잇스며 그뿐아니라 公等은 六七百年間의 武士道에 對한 遺風과 餘韻을 承受한지라 비록 利에 迷하야 義를 모른는것이 常人의 心事라 할지라도 그러한 傳受와 先風이 잇는 公等으로서는 利益의 觀念이 또한 公等으로하야곰 吾人의 心情을 斟酌함에 何等의 妨害를 與치못할것이며 이처럼은 다 그만두고라도 公等의 聰明은 임의 人에 超하야 秀하얏스며 公等의 良心은 또한 人에 絕하야 卓越하얏고 그뿐아니라 公等의게도 血이 잇고 淚가 잇거니 엇지 그 聰明 그 良心 그 血淚를 가지고 吾人의 胸中을 想하고 察함에 何等의 遺憾이 잇스리오 그런즉 公等의 吾人의 胸中을 察하얏슬것이 또는 察할것이 明且審矣오 正且確矣로다 그러나 吾人은 疑惑이 不無하노니 公等의 朝鮮에서 行하는 政治와 政策을 보아 그리하며 公等의 吾人의게 對하야 取하는바 態度를 보아 또한 그러하노라 ! 만일 公等이 吾人의 胸中을 充分히 想察하얏다하면 吾人의게도 廉恥가 잇고 心腸이 잇는것은 勿論 吾人의게도 四千年 歷史가 잇고 優秀한 文化가 잇스며 堂々한 良心이 잇는것을 靜々한 義理의 觀念이 잇는것을 또한 充分히 知得하얏슬것이니 이것을 知得한 政治家로서는 今日 朝鮮에서 見하는것과 갓흔 政治나 政策을 敢히 吾人의게 施치 못할것이며 今日 日本人이 朝鮮人의게 取하는바와 갓흔 態度를 또한 敢히 吾人의게 持치 못할것이어늘 公等은 能히 이것을 하고 能히 이것을 取한 을 본 배에 吾人은 公等의게 向하야 公等은 果然 朝鮮人의 胸中을 察하는가 하고 뭇고 십허지노라

公等은 혹하면 吾人을 向하야 「日本人은 朝鮮人의 幸福을 增進키 爲하야 莫大한 努力을 經費하는데인즉 朝鮮人은 頗히 此恩惠를 感泣할지라」 하는듯 그러나 이 엇지 吾人의 胸中을 察한 者의 言이라 嗚呼라 吾人이 아모리 顚狂하기로 恩惠의 觀念을 不知하는 者리오 만일 眞正의 恩惠가 그런것이라하면 吾人은 寧히 一時라도 恩惠의 가운데 잇기를 不肯하리라 또한 公等은 吾人을 向하야 「誠心誠意로 朝鮮人의게 臨하노라」하나니 吾人은 「吾人을 何物노 思하나뇨」하고 反問하고 십도다 吾人이 아모리 辨別力이 見孩만하기로 人의 誠心과 誠意를 理解치 못하는 者리오 그러나 만일 誠意가 亦是 그런것이라하면 吾人은 永遠히 그런 誠意를 謝絕코저하노라 또한 公等은 每樣 「同化主義」니 「內地延長主義」니 무슨 主義 무슨 主義하나니 此에 至하야는 朝鮮人을 侮蔑함이 甚하고 또한 公等도 誤解함이 甚치아니한가 公이 아모리 吾族朝鮮人을 輕視하기로 如此한 沒廉恥한 傍若無人의 橫暴한 말을 엇더케 忍言하며 敢히 吐하나뇨 慨惡라 今日 朝鮮人이 아모리 一時의 衰微를 極하얏다 할지라도 커어도 吾人의게는 四千年의 長久한 歷史와 一定한 言語 一定한 文字 一定한 風俗 一定한 傳統 一定한 道德의 完全한 文化가 잇지아니한가 이러한 人民이 이러한 民族에게 向하야 人民은 先存한 歷史나 文化를 忘하며 棄하고 他의 歷史나 文化에 化하라 하니 이 엇지 大膽하고 無謀한 暴說이 아니며 吾儕에 對한 侮蔑의 極함이 아닌가

그러나, 吾人은 이제 吾人의 胸中을 公等에게 말니고져 하지도 아니하노라 또한 吾人이 公等에게 向하야 何를 言하며 何를 論하리오 만일 吾人에게 言할배잇고 論할배잇다하면 吾儕各自가 互를 노알고 互을노 訴할뿐이로다 그러기에 吾人에게는 오직 嚴肅한 沈默이 잇슬뿐이로다 日本政治家여 公等이 만일 過去十年事를 가 記憶이 잇거든 一年前에 騷擾事件을 除한 以外에 일즉이 吾儕朝鮮人이 何時에 이 「沈默」의 態度를 改한 배가 有하얏스며 또한 이 心約을 破한 배가 有하얏드뇨 近日도 日本政治家로서 朝鮮을 特히 來訪하는 者中에 吾人에게 向하야 現時 總督政治에 對한 批評을 求하는 이가 多하도다 그中에는 人을 隨하야 물으며 求하는 內容이 또한 一致치 아니하도다 或은 「總督政治에 對한 感想이 如何하뇨」하는 者도 잇스며 或은 「總督政治에 對한 不平과 不滿이 무엇이뇨」하는 者도 잇고 또 或은 「總督政治에도 改善할것이 不無할진즉 如何한 點이 改善할것이뇨」하는 者도 잇도다 그러나 吾人이 此에 對하야 何로써 陳하리오 何로써 答하며 何로써 答할 그럼으로 如此한 質問을 受할時마다 簡單하게 「우리는 別노 總督政治에 對하야 感한것도 업고 따라서 不平不滿도 無하고 改善할 點도 思考한것이 別無하노라」하고 그러나 吾人이 엇지 答할뿐이엇노라 果然 何等의 批評眼을 具有치 못한 者며 또한 何等의 要求와 主張을 抱持치 안은 者리오 또한 總督政治에 對하야 何等의 意見과 何等의 不平이 無한 者리오 오직 그 意見을 吐할 眞正한 機會가 無하며 또한 그 施할 眞正한 餘地가 無한지라 그런故로 무엇을 開口하야 論하는것보다는 寧히 沈默을 守하야 言이 無함만 不如한故라 果然이로다 吾儕는 鮮人이 今日의 總督政治에 對하야 何를 言하며 何를 論하리오 再言하거니와 吾儕의게는 오즉 「沈默」이 有할뿐이로다 그러나 日本政治家여 公等은 此朝鮮人의 「沈默」을 嚴重하고 莊重한 謎와 如한 「沈默」을 如何히 思하나뇨 公等이 이제 만일 吾儕의게 向하야 總督政治에 對한 眞實한 批評을 듯고져 할진대 몬저 公等의 聰明이 이 無言의 雄辯인 「朝鮮人의 沈默」을 洞觀할 能力이 잇는가를 卜할진저

깐듸思想의 研究(一)

一

現代世界의 思想家로 「레에닌」 「아인스타인」과 並稱하야 三大偉人이라고하는 印度의 「깐듸」는 果然 如何한 思想을 가젓나뇨 彼의 主張하는 理想主義下에는 戰艦도 쓸데업고 砲彈도 所用업고 精銳의 兵士 勇猛한 將軍도 何等의 權威가 업스며 印度三億의 蒼生으로부터 神이라고 尊崇밧고 釋迦以上의 聖人이라고 謳歌를 밧으며 彼와 接觸하는 人士는 누구나 神靈의 存在를 無疑하는 더러일뿐만아니라 去三月에 「안듸」는 鐵窓裡에 몸을 投하게 되얏지마는 彼의 投獄하든 날에는 印度人士는 可謂 全部가 斷食하야 그 苦를 同情하고 그 悲를 갓치하얏스며 狂暴無二한 英國官憲도 禮와 淚로써 護送하얏다는 彼의 主義는 果然 如何한 것이뇨 往昔에 回々敎의 敎祖 「마호멧트」는 左手에 聖典 「코오란」을 밧들고 右手에 斬魔의 白刃을 두르면서 敎國을 建設하얏다 하지마는 이제 「안듸」는 左手에 眞理要 國産의 旗를 밧들고 右手에 現代文明不服從이라는 消極的 武器를 두르면서 將次 世界를 風靡하려하는 彼의 主張은 果然 如何한 것이뇨 갓치 東洋의 國을 成하고 社會를 構하는 우리 自然의 文明을 가지고 幾千年동안 天眞爛漫한 社會生活을 하야 오든 우리 갓치 特殊한 地方的 社會的 民族的 文明을 가지고 世界를 征服하고 世界에 자랑하든 우리 갓치 近代西洋物質文明의 奴隸가 된 우리 갓치 社會的 不安이 잇고 民族的 不平 政治的 不滿이 잇는 우리 卽 여러가지 點으로 事情을 彼印度와 갓치하는 우리는 彼印度의 情況과 狀態 特히 思想界의 潮流가 那方面을 向하야 前進하며 有進無退의 精神으로 躍動하는지를 알 必要가 엇더한 意味로든지 큰 뿐만아니라 經濟的 侵略主義 卽 資本主義 成熟의 成果인 過般世界大戰이 지나자마자 正義人道와 自由平等의 思想이 加一層 騎虎의 勢를 가지고 全世界思想界를 侵襲하야 一便으로는 露西亞와 갓치 暴力的 社會主義의 革命이 起한 反面에 他便으로는 印度와 갓치 無抵抗的 理想主義의 革命이 起하야 現代物質文明의 一大轉機를 作한 今日의 思想界의 潮流를 아는데도 반다시 無益이 아니라고 思惟하고 玆에 後者를 代表한 「안듸」思想의 眞髓를 紹介하려하나 그러나 「안듸」思想이라고 하면 政治的 道德的 社會的 經濟的 各方面에 亘하야 잇슴으로 一々히 이를 詳擧할수는 업고 다못 「안듸」思想의 根柢를 作한 「솨티아그라하」(眞理把持의 敎義)를 簡單히 紹介하려하노라

그러나 玆에 注意할것은 다못 思潮의 紹介에 不過하고 이를 無條件으로 是認한다든지 敢히 批評하는 態度에 出한다든지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二

「솨티아그라하」라하는 原語는 「솨티」(眞理)라하는 말과 「그라하」(把持)라하는 말의 두가지를 合한것인데 이를 譯하면 眞理를 잡는다하는 말이니 (余는 이를 意譯하야 至上善主義라함이 可하다 하나 眞理把持라고 譯稱함으로 暫間 그대로 引用함) 卽 무엇이던지 眞理에 適合하다고 是認하면 千辛萬苦를 不顧하고 그에 向하야 獻身的으로 이를 實行한다는 意味라 그래서 眞理把持主義者는 第一에 祖國奉仕의 精神을 기루고 第二에 手機其他 筋肉勞働에 依하야 印度民族延하야는 世界民衆의 生活을 經營하자하는 것이니 「안듸」는 이 精神을 固守實行하라면 同志者가 相應하야 一大團結을 作하고 그 團結의 勢力으로써 終乃에는 世界에 그 主義를 適用케 하리라는 自覺下에서 爲先 印度로부터 그 旗幟를 擧하얏도다 그러면 「안듸」의 所謂 솨티아그라하라하는 敎義는 그 發生 因熟의 由來가 何處에 在한고 나로하여곰 그 敎義를 說明케 함이 可할지니 元來 「안듸」는 一八六九年 十月 二日에 印度의 西南端 「포르반다아」라하는 地方에서 誕生하얏나니 그 遺因과 近因은 階級 「푸라민」의 職能을 맛아서 遺傳的으로 宗敎를 信奉하게 되얏스나 그러나 彼自身은 「푸라민」이 아니오 第二階級인 武士階級의 武勇과 熱血을 가젓스나 그러나 彼自身은 또한 武士階級도 아니라 彼의 父親은 印度有數의 政治家로 氣骨이 壯大하고 性質이 溫良하야 人으로부터 推仰밧고 特히 汚行惡事를 보면 어데까지던지 이에 反抗하얏는데 이 점에 「안듸」의 風神이 그를 傳襲하얏다하며 彼의 母親은 印度正敎派의 淑女로 宗敎的 戒律을 堅守하얏스며 賢母良妻인 婦德과 母道를 實踐하든 中 더욱히 善良正直으로 育兒하기에 苦心하얏다는데 이제 「안듸」의 性格上에 그 宗敎的 端嚴한 德度가 잇다하노라

馬港旅感(三)

I S 生 (寄)

三、烏致院에서 馬山驛까지(續)

만일 그 兒孩가 철이잇서々 辭讓의 禮를 알만하면 잘 놋은 하얏다 그러나 몸을 잇치게까지 한것은 좀 過하다 이 못자리를 보면 어른들이 四方 長臥하야 泰然不動하고 잇는 사람도 여럿이 잇다 또는 한자리는 짐이 누엇고 그 건너便에는 兒孩가 두자리를 占한것도 잇서 엇지하야 其紳士의 忿怒가 何必 其兒孩에게 갓는지 좀 疑問이 잇섯다

太田停車場에서 산 大阪每日新聞을 포켓트에서 내여 드니 午睡의 투를 재료가 되얏다 便々치 안은 자리의 잠이 엇만 엇지 고개 秋風嶺 넘는것도 모르고 南鮮 中心驛 大邱驛의 만흔 무리의 와글거리는것도 夢裡에 지나고 阿娘閣 嶺南樓와 千巢舍 堂大人來라 [illegible] 年々 花血을 흘리는 글노 古今에 遐名한 密陽의 南江上 嶺南樓도 흠러보지 못하얏다

이 다음은 三浪津 馬山行客은 車를 밧구어 타시오 하는 車掌의 큰 목소래에 눈을 부비고 이러낫다 時間은 下午 五時 三十五分 잠은 두時間 以上을 잣다 三浪津서 나려가지고 二時半이나 기다려야 馬山을 가게 된다 停車場은 엇재 그리 狹窄 雜沓한지 心思가 空然이 不快하야 진다 이때에 젊은 안즌 六十歲쯤 되여 보이는 弁客인 人이 古談 소래에 귀요이 忘憂가 되는 老人이 鬚髯을 어루만지며 煙竹을 물고 흥 ! 녯날에 兩班노릇을 하자면 힘이 드더니 우리 少時적에 京城을 갓다 오라면 五六月 炎天에도 솜버선에 가죽신을 신고 衣冠을 갓추고 쉬울서 떠나 嶺外지 와야 되지 그래야 沿路 住宿이에게 下待하야 男女勿論하고 손을 여보게 하지만 몇 감발을 하고는 못되얏다 비하는것은 옛이야기나마 可笑며 可歎이다 何如間 時間 기다리기 支離함은 免하엿다 同八時에 車를 다시 타고 九時에 馬山驛에 나리니 情友와 握手의 반가움은 이루 形言할수 업섯다

四、多情한 馬山

馬山은 本來 나와 因緣이 깁흔 곳이다 友情의 깁흠만이 아니요 特別한 맛봄과 사랑이 잇는 곳이다 別한지 오래면 思ー切하고 匪려 오래면 懊ー極하다 出嫁한 女子의 其親庭에 對한 情도 에서 지나지 못할 것이다 울음에 갓치 울고 우슴에 갓치 웃나니가 이 世上에 누구일가 兄이며 弟이냐 兄과 弟의 사이에 엇지 別을 恨치 만으며 逢을 喜치 안으랴 貧노 遠離는 手ㅣ 溫하고 對하는 顔이 怡하다

異樣한 市街 腐敗한 空氣에 心神 苦惱도 만엇슬것이으 暇際업시 忽忙함에 奮發도 넉々지 못하리라 하야 海岸 갓가이 精潔한 집 二階를 特別 留所로 定하여 주고 쉬니 男女이 遊蕩品을 주는것은 其고마음을 말노 다할수 업다 이리되며 마음을 홈석 푸러 놋코 閑發을 잘하게 되얏다 心神이 爽快하고 氣分이 活潑하다 重々疊々한 山은 모다 秀麗하고 浩々洋々한 海는 美만임이 업다 處所에 잇슴에 閑談은 깃봄이 넘치고 時로 散步함에 自然의 景色은 慰安되지 안는것이 업다 內海는 밤床바든듯이 노여 海風을 부러 줄에 뒤에 잇는 森林에서 홀너 오는 松風은 混和하며 淸新한 空氣를 만드러 내드다

내 腦海에 퍼하야 見聞이 不足한 타신지 모르거니와 氣候로는 이곳이 天下에 몃재가지 안을것 갓다 務冬에 침지 안코 盛暑에 덥지 안타 果然 이지 空氣만 잘 呼吸하면 情이란 敢히 侵犯치 못하것다 이갓치 氣候 조흔 때에 사는 兄弟의 多福은 毋論이어니와 모든 사람의 快活 健康은 참말 부럽고 깃버 보인다 諸原한 長者의 風이 잇고 濟々한 丈夫의 氣像이 드러난다 都市는 都市로되 都市사람들되 그 알미운것은 一分도 업다 이에 其氣質 性格을 欽慕치 안을수 업섯다

한대 나는 間々이 散步로 나섯섯다 海岸 埋築地로 海水浴場으로 公園으로 夕陽天에 海岸에 가서 보면 漁夫들이 주우 느러안저서 낙시를 물에 더지고 잇는것은 其趣味가 極히 閑雅하여 보인다 볼적마다 나는 古人의 詩에 「把竿終日趁江湖 垂足滄浪困一眠 夢與白鷗飛萬里 覺來身在夕陽天」이라는 것을 想起하야 보앗다 風土氣候가 조하서 天惠가 豐富한 곳이오 間或 情趣나 雅懷가 잇기는 잇스나 一般의 生活을 보면 人生으로서 人生다운 生活을 하기에는 아직 渺然하다 어린 둘그리치 안으리오 만은 이곳은 조곰 ㅣ들 하리라 하얏더니 맛치 한 貌樣이다 貧鬼에게 부닥기어 견데기 어려운 貌樣 劈賤에 慾態가 보엿고 特權勢力에 눌녀 殘喘을 保키에 困境 罹狀은 慣慣의 色이 업슬수 업다 그러나 能히 참으며 能히 견데민다 但하며만 所用이 업고 怨하며만 必要가 업다 힘자라는것 外지 奮鬪할만 努力할만의 延長것 힘쓰는것이 人生의 참 活을 찻는 當然한 責任이다

체르캇슈 (꼬ー리키ー)

瞬星生

十五

바다로 나아오면, 그의 가슴속에서는 恒常 [illegible] 따뜻한 一種의 感情이 이러나, 全精神을 抱擁하야, 한참동안은 地上生活의 더러움으로부터 自分의 魂을 淸潔케 한다. 그는 이 感情을 즐겨햇다. 化된 自己를 보기를 즐겨햇다. 물과 하늘사이에 나와잇스면, 모든 生의 想念과 生그것까지도 항상 첫재로 그 날카로움을 일코, 얼마 뒤에는 그 價値까지도 일는다. 海上에서는 밤이되면, 밤의 잠자는 보드러운 숨소리가 들닌다. 그, 엇더타 말할수업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에 平和를 注入하고, 모든 奸邪한 衝動을 親切히 抑壓하야, 心中에 힘센 默想을 이르켜준다……

「줄을 어듸두엇던가。」하고 安心되지 못하는 듯이 이리저리 三板안을 둘러보면서 별안간 부르짓다。

체르캇슈는 猛烈한 形勢로 이러서々

「줄? 줄이야 배머리에 잇지。」

「엇던 줄이야?」하고 가부리엘은 거듭 뭇는다。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겁먹은 목소리다。

「엇던 줄이냐고? 그야 배매는 줄이지——」

이와갓치 말을 햇스나, 체르캇슈는 이便의 참計劃을 說明도 하지아니하고, 지금와서 짐은 者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엇전지 우서럽게 싱각낫다。그뿐아니라, 그는 이 싀골놈의 무름이, 그 當席에서 無據하게 되여바리기 可할 여러가지의 싱각, 여러가지의 感情을 마음에 어리키게 하게 싱각하얏섯다。그러치, 또 공연히 골이 나서, 커버릇의 날카로온 부러오르는 듯한 感情이 가슴으로부터 목으로 向하야 치미러 올나온다。그는 억지로 그 焦燥한 마음을 抑壓하고 가부리엘에게 말햇다。

「너는 비일만 하고 잇스면 그만이지。남의 일에 참견말란 말이야。너는 倒 커쥬다고 삭주고 부리는 것이지——그러니 커혼란 말이야。또다시 쓸데업는 칭칭을 휘다가는 좀을 처노흘테다。」

한참동안 그들은 히리커리혼다。배는 아족 물에 잠긴채 가로쇄를 니다가, 얼마만에 平靜하게 것치고 잇섯다。가부리엘은 거러안즌채 安心되지 못하는 듯이 몸을 움지기고 잇섯다。

「주어!」

지독한 傳說의 소리는 空氣를 震動시키엇다。가부리엘은 倒를 삽앗다。三板은 무엇에 놀래인드시 요리빗독, 조리빗독 흔들니면서, 驟然히 물을 쓴코 다라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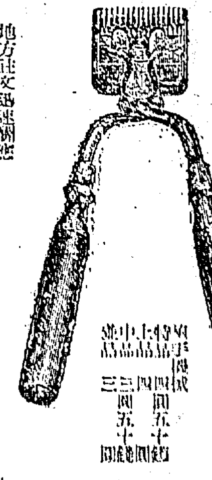
「더세게!」

公告

一、釜山府仲島町二丁目七五 滯納者 金桂順
垈 參拾參坪

十一年八月二十三日午前十時當廳에서 右差押物件入札로써 公賣함 詳細는 財務課로 問議하시오

大正十一年八月十六日 釜山府



地方注文迅速確實 京城鍾路一丁目三九番地 理髮機直輸入商 長美商會

本都中에서今月十一日臨時總會를開하고被訴事件과大正九年一月二十九日決議委任한金澍然金振煥張與植三氏에게委任權限을解除하라는李雲錫等內容證明書通知事由를總會에公佈하야此를決議한結果繼續委任하기로決定하얏사오니不參諸員은照亮하시옵

大正十一年八月十一日 鞋匠都中大行首 朴在淳

림질 全治藥 八日分 四圓 特 三圓 並 二圓
의독 藥 特 三圓 並 二圓

朝鮮總督府病院 京城醫學專門學校 [illegible] 百圓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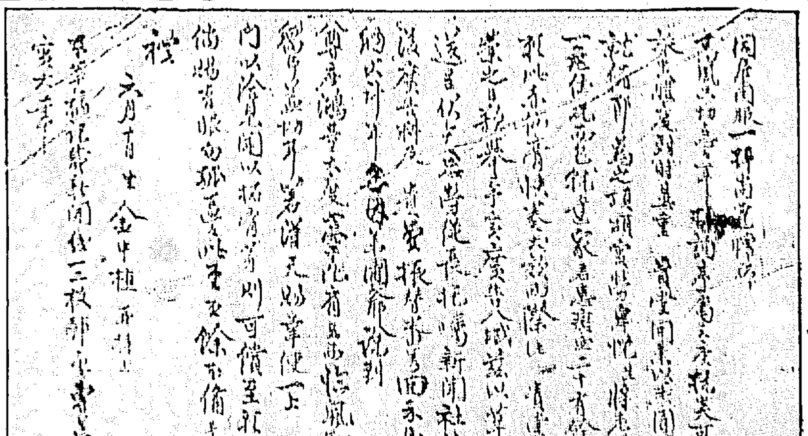
京城南大門外 有田드락구本部

京城黃金町電車通 同 鍾路十字街 同 三角地 釜山辨天町 馬山府町 群山東榮町 木浦榮町 元山本町三 平壤郵便本局前 光州本町 鎭南浦三和町 仁川宮町二 大邱弓町 晉州大安洞 咸興本町 統營 全州高砂町 甘浦 羅南生駒町 東萊 [illegible]

有田드락구

本堂에 製造하는 赤仙膏에 對하야 地方人士中 以下와 如한 感謝狀이 來到하얏사기 玆에 原文대로 謹告하나 患者諸位의게 大福音을 紹介

[illegible]



大正十一年壬戌六月日 康津郡大口面桂栗里 金孝植 金中植 金卒植

舶來白鞣

新到着

現今歐米에 流行하는 最新式形狀을 新先하게 製作하온 前日의 愛顧하시던 諸氏에게 [illegible] 諸位에 一次試用하심을 望함

京城鍾路靑年會館前 世昌洋靴店

倫敦會와 妥協努力

英佛兩軍의 見解相違에 就하야

倫敦會議는 英佛兩國의 見解相違에 就하야 妥協하려고 依然努力中이며 一般觀測에 依하면 大陸側은 一割六分의 輸出稅를 課하고 又獨逸의 關稅를 沒收하야 獨逸에 對한 保障으로 賠償委員의 自由에 歸할터이며 特히 右沒收를 實行치 아니할 境遇에는 國有森林及鑛山을 質押하며 又獨逸이 石炭及材木을 引渡치 아니하는 境遇에는 獨逸帝國銀行을 管理하게 되리라더라(倫敦十二日發)

英佛協定尚未決定＝倫敦會議에서는 獨逸賠償金支拂延期를 容認하는 模樣이나 英佛間의 協定을 互相讓步치 아니하는 所以로 容易히 決定되지 아니한다더라(倫敦電)

佛首相의 威脅聲明

事不如意하면 單獨行動

倫敦會議에 在한 佛國의 提議에 對한 英國의 對案內容은 獨逸財政及金融上改革及從來의 國際公債成立의 機運이 有望하야 此를 復活케 함을 適當하다고 思惟한다 附言하고 且獨逸의 支拂猶豫期間滿了後 獨逸에 返却할 勘定其他二割五分의 收入金은 此를 右公債의 保障으로 한다는 바에 對하야 「포앙카레」氏는 甚히 固執하는 터이라 卽 「라인」關稅障壁을 設定할 主張을 斷念하고 專히 森林及 「루一얼」鑛山管理의 主張에 全力을 集中하야 强硬하더라 그리하야 「포앙카레」氏는 若聯合國과 協調가 成立치 못하면 單獨行動을 取한다는 威脅으로 對峙한다더라(倫敦十二日發)

英倫敦會議悲觀

英國政界는 倫敦會議의 結果에 就하야 依然히 悲觀的인데 獨逸에 對하야 取할 手段에 就하야 長時間의 審議를 繼行中이라더라(倫敦十二日發)

英華約批准通牒

英國은 八月十日付로 對華盛頓會議의 議定條約의 全部가 批准된 事를 各國政府에 對하야 通牒을 發하얏다더라(東京電)

新聞王遂逝去

新聞王 「노一쓰크리푸」卿은 十四日遂히 逝去하얏더라(倫敦電)

獨巴爭議遂解決

公報에 依한즉 獨逸共和國保護法에 關한 獨逸과 巴威兩政府의 爭議는 滿足히 解決되야 巴威는 其聯邦式統一을 恢復하려는 特別規則을 撤回하고 同時에 獨逸은 獨逸의 憲法의 範圍內에 在한 重要한 問題에 就하야서는 巴威의 主權에 干涉치 아니한다는 保障을 與하얏다더라(伯林十三日發)

巴政府에 特種利權承認＝巴威의 聯邦一任하는 處置에 就하야 同政府와 中歐政府間 紛爭은 今에 妥協이 成立되얏는데 卽政府는 調和策에 對한 巴威政府의 法令에 違反하는 命令을 撤回할 事와 共히 中歐政府는 此特別法律을 適用上 巴威政府特權의 利權을 承認한 것이라더라(伯林電)

獨軍縮實現希望

「코펜하一겐」에 開催된 世界各教會聯合大會는 中歐諸國이 聯合國의 約束에 應하야 軍備를 減少함에 不拘하고 現在服役하는 武裝兵員은 一九一四年보다도 尤甚하다는 決議를 行하고 更히 歐洲全般에 軍備縮少를 勵行하기를 切言하얏다더라(伯林十四日發)

日人絕對排斥案

今年末加州議會에 提出

米國下院議員再選運動中인 「하이람죤손」氏는 十日夜桑港演說會에서 日本人을 中國人과 同樣으로 絕對排斥하는 案을 今年末加州上下兩院에 提出하기로 된 事는 公然의 秘密이라 發表하얏더라(桑港十一日發)

從業員列車를 放擲

米鐵罷業危險惡의 一證

鐵道罷業은 七週間에 達하얏는데 形勢는 益々險惡한 模樣이며 全國鐵道聯盟은 將次在任될 듯하다 有하야 國土其他鐵道從業員은 「칼리포니아」州及 「아리소나」州의 荒野에서 大陸橫斷線並 「산타페」線의 列車를 放擲하얏는데 市俄古를 發한 貨物列車도 亦同樣으로 放置되얏는지라 數百名의 乘客은 大騷擾하야 「하一딩」氏에게 電報를 發하야 婦女와 兒童의 救助를 急速히 하야 會社側及從業員側雙方의 妥協을 强制하도록 政府에 要求하얏다더라(市俄古十二日發)

過激派英艦押收

過激派는 「쉐츠一를」港에 在한 英國汽船三隻을 先에 露西亞의 所有라는 理由下에서 全部押收하얏슴으로 英國艦隊若干은 「쉐츠一를」을 向하야 出發하얏는데 同地의 英國商人은 悉皆同地와의 貿易을 中止하얏다더라(君府十二日發)

國是會議審議案

八團體의 國是會議의 憲法案委員會는 大略其審議를 終了하얏는데 其要點은 左와 如하다더라(上海十四日發)

一, 中華民國을 聯省共和國으로 定할 事
二, 國防軍은 二十萬以下로 定할 事
三, 軍人의 職을 退한 後三年을 經過치 아니한 者는 聯省政府及省政府의 長官됨을 不得할 事
四, 現役軍人은 政治에 關한 意見을 發表함을 不得할 事
五, 參議院을 撤廢할 事

等인데 右는 北京國會에 送하야 憲法制定의 參考로 할터이라더라

憲法修正을 請願

北京의 有志로 組織된 憲法修正請願團은 (一)聯省自治 (二)婦人參政 (三)信教의 自由 (四)教育의 獨立 (五)勞働保護에 就하야 目下開會中인 國會에 請願하얏다더라(北京十一日發)

黎吳間에 日復疎隔

黎總統과 吳佩孚氏와는 逐日疎隔되는 兆徵이 有한데 尙且國會方面에서도 軍閥의 政治干涉에 反感을 抱하고 吳氏와 國會와의 衝突은 漸進하는 傾向이 有하다더라(北京十四日電)

直派首領會開催

黎總統不推讓을 議決乎

吳佩孚氏는 最近直隸派首領會議를 洛陽에 開催하고 時局의 根本的解決案에 就하야 密議하얏는데 右는 今後黎總統을 推戴치 아니하며 且現時南北統一의 卽時的實現을 主張치 아니하는 二點에 在한 듯하다더라(北京十三日發)

曹, 庫倫恢復을 電請

曹錕氏로부터 十一日付中央政府에 庫倫에서 中國商人이 露人에게 迫害를 當하는 現況을 陳하야 速히 大軍을 派하야 露人을 驅逐하고 庫倫의 恢復을 圖할 事를 電請하얏는데 十二日閣議에서 右에 關하야 協議하얏스나 何等決定이 無하얏다더라(北京十三日發)

孫文再舉企圖說

上海에 入한 孫文氏는 不日杭州에 赴하야 浙江督軍盧永祥氏와 會見하고 同氏의 後援을 得하야 再舉를 計劃한다고 傳하다더라(上海電)

一千群衆의 孫氏歡迎＝孫文氏는 本日午前十一時上海에 上陸하야 直히 私邸에 入하얏는데 一千名의 出迎人은 歡迎旗를 揭하고 共同租界의 埠頭에 其到着을 佇待하얏스나 孫氏는 警察의 注意에 依하야 吳淞에서 上陸하고 張繼氏를 代表로 埠頭에 派遣하야 群衆의게 感謝한 意를 表하얏다더라(上海十三日發)

今後活動策을 講究＝孫文氏는 自邸에서 午後二時부터 協議會를 開하고 今後의 活動策을 講究하야 一兩日內로 上海에 宣言書를 發表하야 其强硬한 態度를 示할터이라더라(上海十三日發)

山東交涉

十四日討議內容

十四日開會의 山東委員會第十四回討議事項은 左와 如하더라(北京十四日發)

一, 日本委員으로부터 埠頭港灣에 關한 增加財產目錄을 提出하얏스니 卽埠頭(倉庫를 包含)八十八萬四千九百二十一圓 港灣百三十二萬七千九百二十一圓 合計二百二十一萬五千七百三圓으로 秋山委員의 說明이 有하야 公有財產分科會에 附託
二, 中國委員은 日本委員의 前回提案에 對하야 回答
(가)電話에 關하야 交換用으로 하야 當分間日本語使用에 就하야는 此際特別規定을 設할 必要가 無한바 特히 將來日本語를 解하는 交換手를 採用할 便宜를 圖함을 聲明
(나)濟南의 無線電信은 公衆用에 開放할 事에 同意하나 日本文字에 就하야는 同意키 難함
三, 郵便電信問題는 專門家의 硏究를 要함으로써 分科會를 組織케 하기로 하야 郵電分科會委員을 日中雙方으로부터 任命하되 委員의 數는 日本八名中國六名으로 함

普選斷行

現內閣은 普通選擧를 斷行하리라고 傳하더라(東京電)

軍縮과 異動發表

十四日發表한 陸軍大異動은 總數三千餘名으로 中將被待命者는 第一師團長西川中將他十三名 少將級十七名 中將陞任者十九名 少將陞任者三十一名이라더라

對中態度聲明

去十一日閣議에서 決定한 對中政策에 關하야 十四日午後五時外務省으로부터 「日本政府의 中國現政局에 對한 態度」에 就하야 一聲明을 發表할터이라더라(東京電)

別報＝十四日外務省은 中國의 統一政府가 成立되기까지 同國財政에 對하야 援助를 與치 아니하고 日本政府의 態度를 聲明하얏다더라(東京電)

暴利取締

範圍擴張

農商務省은 룡者市內各商店에 物價引下의 警告를 發하얏슨데 更히 不當價貸를 取締하기로 密議中인바 暴利取締法은 其範圍를 限定한 大體原案에 同意하야 此를 發布하는 傾向이 有함으로 一般不當販賣를 取締키 不能이라하야 同法의 效力範圍를 擴張하고 其適用을 有效케 할터인바 改正案은 旣히 起草中이라더라(東京電)

駐滿洲守備隊

三期에 撤退實行

南滿獨立守備隊의 撤退에 關하야는 過般元帥府會議에서 其大綱을 決定하고 旣報와 如히 政友會에 內示하얏는데 軍縮案에도 示하얏거니와 其詳細에 就하야 當局으로부터 確聞한 바에 依하면 全滿洲의 撤退를 三期에 分하야 遼陽以南을 本年內에 遼陽鐵嶺을 明年內에 鐵嶺以北을 明後年中에 實行할터이며 撤廢後의 警備는 警察官을 增加하기로 大略決定한 模樣이며 尙且警察官數는 現在旣히 二千餘名인바 守備兵撤退後의 增員은 守備隊의 數에 應하야 漸次增加할터이라더라(東京電)

日米電信進步

內田嘉吉氏東鄕男其他一流實業家等의 發起에 係한 日米電信會社의 計劃은 數次會合의 結果大體의 具體案이 成立되얏는데 海底線과 如함은 其豫定한 「알라스카」로부터 露領西比利亞를 經由하는 것과 太平洋橫斷線의 二線中에 太平洋方面것으로 內定한 듯하며 外務遞信陸海軍各省과 關係가 有함으로 九月渡米人會를 開한 後中旬以後에 關係各省과 會合한 後協議를 開할터이라더라(東京電)

在滿日人會社

朝鮮銀行調查에 依하면 七月末에 在한 在滿洲日本會社는 四百五十八社, 公稱資本金六億三千四百二十三萬圓 拂込資本金四億八百四十八萬圓인데 前年同期에 比하면 十六社 二千七百三十六萬五千圓 拂込資本金一千二百七十八萬九千圓의 增加라더라(東京電)

府學校費賦課方法에 對하야(續)

長尾理事官談

玆에 大正十一年度에 在하야는 大正十年度의 困難한 經驗에 鑑하야 賦課의 公平을 期코저 多大한 時日과 勞力을 費하야 資料의 蒐集을 爲한바 就中全鮮十二府一千五百五十面에 對하야 照會를 發하고 京城府에 在住者의 所有土地法定地價를 調查하야 其地價에 對한 所得額을 算出한 것이외다 此

地價調查는 實로 大事業이얏스며 實로 朝鮮에서 初試한 事라 此는 單히 戶別割課稅標準되는 外에 政治上經濟上又는 產業上有力한 參考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외다 以上調查의 結果에 依하야 推定에 比하면 甚히 相違를 見한 者有하나 要컨대 大正十一年度에 在한 等級設定은 全然新見地에 立하야 前年度의 等級과 如함은 一切此를 顧慮參考로 하지 아니하고 今回調查에 係한 數字의 示하는 바에 依하야 五等以下五十等外지 四十六等으로 分하야 最高를 一千二百五十圓으로 最低를 一圓六十錢으로 하야 各人의 賦課額을 定한 것이로다 此를 前年度賦課額에 比하면 總額은 兩年度共同額임에 不拘하고 各人의 負擔額은 大差를 生한 者가 有하야 本年度賦課額에 近한 것이라 하며 又納稅人員에 對하야도 漸次分擔의 範圍를 擴張할 方針下에 本年度에는 約二割五分을 增加하야 一萬二千百二十二人에 賦課하기로 한 것이라

本年度에 在한 各人等級에 對하야는 學校評議會에서도 大體原案에 同意하야 玆에 賦課額의 確定을 見함에 至하야 本月十五日로써 第一期分納入告知書를 發하얏스니 本年度納稅者一萬二千九千三百五十六戶人口十八萬九千七百七十四人內有產階級으로 認定된 者 八千百七十四人은 卽京城府朝鮮人戶數로 한 者이라 依하야 納期內(八月三十日限)에 完納함이 敎育上各般의 施設에 支障이 無하도록 하기를 希望하노라云々(完)

尹氏改良漁船에 對하야(續)

西村殖產局長談

一, 船首의 改良 朝鮮在來漁船은 中國의 戎克과 同히 船首의 外部가 扁平하야 一尺乃至二尺內外임으로 波浪의 抵抗이 强하야 速力이 減少함으로 進行이 困難하얏스나 氏는 此船首를 本型漁船과 如히 堅板을 用하야 狹小하고 波浪의 抵抗面을 減少하며 西洋型帆船과 如히 水中에 下함에 從하야 自然히 內面이 曲하게 하야 前進하는 速力도 强하고 船首의 回轉도 容易하게 되얏스며

二, 船尾의 改良 在來漁船의 船尾는 兩側이 突出하야 兩側의 口가 廣함으로 波浪이 船尾에 襲할 境遇에는 其襲擊面이 非常히 廣大하야 容易히 船尾를 破壞케 될 뿐 아니라 波浪으로 因하야 船尾가 高하게 되고 船首는 水中에 浸入케 되는 危險이 有하얏는대 氏는 此點에 注意하야 船尾의 兩側端은 能히 位置의 外지 各側에 張板을 付하야 波浪의 襲擊面을 約三分의 一로 減少하는 構造를 取하야 船尾가 現著히 安全하게 되얏스며

三, 船體의 改良 在來漁船의 兩側及船底는 木釘으로써 板을 結하얏슴으로 波浪에 危險이 非常히 多하든바 氏는 此大弱點을 看破하고 西洋型帆船과 如히 內部에 多數한 肋骨을 設하야 船體를 構成하는 兩側及底部의 張板을 鐵釘으로써 此肋骨에 附하얏슴으로 波浪으로 因하야 破船할 危險이 無하게 되얏도다.

此外에는 幾多의 改良된 點이 不無하나 上記한 三點이 現著한 者이며 漁船의 速度及波浪에 對한 抵抗力이 增加되야 其快速及安全의 能力을 增大하게 되얏스니 第一로 着眼치 아니하면 아니될 最要한 主要眼目을 朝鮮漁業改良上爲先漁船의 改良이 最히 急務라 할지니 此等改良은 最初의 一人의 私見이 아니라 本府의 囑託에 依하야 特히 朝鮮在來漁船을 調查硏究하야 來한 農商務省技手가 充分히 此改良漁船을 調查하고 讚揚하얏도다(未完)

電信電話

取扱規程改正

大正十一年九月一日부터 明治四十三年朝鮮總督府告示第九號中電信電話所의 部를 左와 如히 改正할 旨로 十六日總督府告示로 發布한다더라

一, 「和文電報의 受付, 配達及交付」
二, 「電話通話及呼出」

左記의 事務를 取扱할 時及前二號의 事務를 制限할 時는 此를 告示함

三, 朝鮮文電報의 受付配達及交付

左記電信電話所에서 大正十一年九月一日부터 朝鮮文電報의 取扱을 開始

補助電信電話所(慶南統營郡一運面) 鐵原郡鐵原電信電話所(江原道鐵原郡鐵原面外村里)

豫算案結了

總督府豫算案은 十六日에 完了하얏는바 政府의 補給金은 前年과 同額의 要求를 할 터이며 行政整理로 因하야 削減한 總額은 四百萬圓에 不過한바 此際에 特히 八九百萬圓의 稅制整理, 新規事業等을 行하고 此等은 不可能이라 할지며 和田財務局長은 七日朝南大門驛發列車로 東上하야 概算要求를 提出하고 交涉한다더라

寄附金規則

一部改正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中 八月十六日附總督府令으로 右와 如히 改正하얏더라

第一條中 「警務部長」(京城外는 以下도 同一함)을 「道知事」로 改하고 「京城과 道中他地方에 跨亘」

酒類製造額

酒造石高二十四萬石增加

大正九年十月一日부터 大正十年九月三十日에 至하는 一個年間의 朝鮮酒類製造石高를 聞한즉 朝鮮酒以外의 釀造高는 四萬四千四百二十二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一萬九千五百十五石이 減少하얏고 又朝鮮酒以外의 蒸溜酒造石高는 五千三百二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二千四百十一石 以外의 再製酒造石高는 六百八十二十九石이 增加하얏고 同年中에 朝鮮酒의 製造高는 年々히 增加하야 同年中에 二百二十五萬九千百五十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二十六萬六千九百九十三石의 增加를 示하야 結局總合計에 二十四萬石의 增加를 見하얏는대 其內容을 見하면 價格이 高한 日本酒의 釀造高는 財界不況의 影響으로 減少함에 反하야 價格이 低廉한 朝鮮酒가 增加함이라더라

郵貯金利引上

朝鮮은 無關係

政府의 郵貯利上에 對하야 總督府遞信局側에서는 政府에서 絕對的決定이 無한 限에는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하며 政府에서 四分八厘로 昇하는 金利를 前年의 五分四毛에 復舊한 데에 不過할 뿐으로 朝鮮에서는 別로 引上치 아니하리라는데 此에 就하야 遞信局監理課長은 語하야 曰 元來日本에서 五分四毛의 金利를 四分八毛로 引下하얏슴이요 今回도 日本에서 引上할지나 朝鮮은 其時에 引下치 아니하얏슴으로 又如何한 程度로 決定치 아니하얏스며 今日에 何等決定이 無하도다云々

病院取締規則

改正發布

私立病院取締規則中 八月十六日總督府令으로 左와 如히 改正發布하야 卽日부터 施行한다더라

第一條, 第三條, 第五條, 第十七條乃至第二十條中 「警務部長」을 「道知事」로 改함
第十五條中 「警察署의 事務를 取扱하는 憲兵分隊, 同分遣所를」 以下도 同함
第十六條中 「憲兵」을 削함
第二十四條中 「朝鮮總督의 出張所」를 「別로 此를 定한」으로 改함

附則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日中防疫會議

二十一日부터 安東縣에서 日中防疫會議를 開催하고 怪疾防止에 對한 協議가 有하리라는데 場所는 日本事務所라하며 總督府에서는 太田衛生課技師가 出席한다더라

聯合委員會

九月十八日開催

第五回滿鮮商業會議所聯合會는 來十月十日安東縣에서 開催한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昨秋平壤에서 第四回聯合會開催時에 鎭南浦商業會議所에서 提出한 朝鮮鐵道의 滿鐵에 讓渡又는 合倂에 關한 件에 就하야 當局에 要望한 事項은 當時朝鮮鐵道의 滿鐵委任經營說도 滿洲의 要望에 必要가 無하다하야 遂히 經營하기로 決한 後임으로 今에 第五回聯合會가 漸次切迫한 後幾多의 紛糾가 有한 後留保하얏는대 此問題를 本年에 提案할 與否에 對하야 委員會를 開催하기로 되얏다더라

橫說竪說

▲元山의 明沙十里가 海水浴場으로 有名한 것은 天下人이 다 아는바이오 또 이 明沙十里에 西洋人의 避暑村이 잇는 것도 亦世人이 모다 아는바인대 그 村衆의 大部分이 耶蘇의 「十字架」를 본밧는 犧牲과 受難과 사랑의 精神이 豐富한 宣教師들인 것도 亦世人이 다 아는바이다 ▲이 耶蘇의 十字架를 본밧는 사람들이 치우쳐울니면 寒하고 더우면 滿하는 것이 그 十字架의 精神으로 보든지 그 受難의 觀念으로 보든지 勿論 「當然」하다고 말는지 鈍한 우리의 머리로는 到底히 判斷하기 어렵거니와 ▲이 사람이 만코 耶蘇의 精神을 소소行하여야 한다고 宣教하는 宣教師의 엇던 사람은 朝鮮사람이 浴衣를 입고 그 海水浴場에 드러오는 것을 禁止한다 ▲中國에서는 中國人의 옷을 입은 中國人과 검정개는 公園에 드러오지 못한다는 西洋사람의 公園規則이 잇거니와 우리 朝鮮에서 이와갓흔 검정개의 待遇를 한다는 所聞은 처음이다 ▲西洋사람의 눈으로 보면 朝鮮사람이 勿論 갓흔 쥐로 보일 것이 事實일 것이면 그러면 얼지이와 갓치 더러운 사람과 갓치 한 禮拜堂에서 「아一멘」하며 兄弟라 하는가 ▲禮拜堂은 하나님의 집이니 그러하고 海水浴場은 사람의 마을이니 그러하다할가 그러면 無所不在의 하나님이 何等 다르리오마는 宗教會議를 열고 改正함이 엇더할가

土木保護規則改正

水道及土木保護規則中 八月十六日總督府令으로 左와 如히 改正發布하야 卽日부터 施行한다더라

第三條中 「第二項」을 削함
第四條中 「警務部長」을 「道知事」로 改함
第五條中 「本回」를 「第一條」로 改함

金融組合聯合會

市內鍾路一丁目金融組合聯合會事務所에서는 來八月二十四日午前十時當組合事務所樓上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市內各組合長이 問題를 協議한다더라

鐵道運賃引下問題

朝鮮의 鐵道運賃引下問題는 過般來相當히 議論이 有하든바 今回會社에서도 日本輸出品의 標準其他를 攷究하야 相當히 運賃引下를 斷行코저 調查中이라더라

殖銀相談役會

朝鮮殖產銀行에서는 來二十一日相談役會를 午後五時부터 同行에서 開催한다더라

辭令

十四日附로 左와 如히 辭令이 有하얏더라

總督府事務官 渡邊豐日子
朝鮮民事令及民籍法改正調查委員 總督府事務官 時實秋穗 石黑英彥
總督府財務局長 和田一郎 東京에 出張을 命함

●飛行隊로 改稱 陸軍常備團成의 結果 陸軍航空隊는 飛行隊로 改稱하고 平壤航空隊는 第六大隊로 改稱하얏다더라

●京城驛으로 改稱 南大門驛의 新築工事는 着々進捗中인바 明年一月一日부터 京城驛이라 改稱한다더라

●廣文社移轉 株式會社朝鮮廣文社創立事務所는 鍾路二丁目六十七番地鐵物橋便洋服店上層으로 移轉하얏다더라

商況

鮮銀行券(八月十四日) [illegible]
日銀行況(八月十二日) [illegible]
日本金利及市況(八月十四日現在)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十五日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外國經濟電報(八月十三日發)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相場은 三十四片二分之一 [illegible]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相場은 [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相場은 [illegible]

大阪三品 十五日前場

[illegible]

大阪株式 十五日前場

大株 同新 鐘紡 同新 商船 日郵 同新 東紡 日糖 上取 [illegible]

京株賣買價(昨日)

京取 仁取 同新 鮮銀 同新 殖銀 同新 實銀 商銀 [illegible]

京株賣買高 十五日의 京株市場의 賣買高는 左와 如하더라
甲部 二百五十枚
乙部 五十枚
短期 一千一百三十枚

乙之部 十五日前場

[illegible]

期米取引 十五日前場

[illegible]

待期會步調

今新甫(十月限)[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穀物標準相場

[illegible]

紙物時勢

[illegible]

仁川日用物價

[illegible]

商況

昨後場은 大阪步調保勢로 二回에 始하야 零落에서 細刻되니 當地亦三十一圓〇九錢에 始하야 十錢을 [illegible]

大阪期米 十五日前場 [illegible]

金時計 村木時計店 京城本町二丁目 電話一七〇九·一五
慶南三千浦 壽一醫院 醫師 朴永周 [illegible]
補正 實費 [illegible]
開成社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농가의한가한때 ══청량리부근의모내기광경══

午砲는府에서經營

일년이천원의예산으로 / 림시협의회서지열울터

날마다 오정이되면 경성의공중을울녀서시간을보는오포(午砲)는 원래룡산(龍山)에잇는 륙군련대(陸軍聯隊)에서마터가지고 매일 놋튼것인데 재작십사일까지 륙군편에서는 경시하게되고 경성부(京城府)에서인계하야부의사업으로하게된이라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경성부에서는 작일오전 에다시 협의한 결과 긔왕에부에서 인계하는이상에는 오래두고 매일오포를놋는것을 하로라도쉬이는것은 섭섭한일이라하야 작일오뎡에는 경성부의 비용으로 오포를놋케되어 일로부터는 매일경성부에서 놋키로완뎡되얏다는데 당분간은매일놋는비용을경성부에서부담하고 대포를놋는 포수(砲手)는 역시륙군편에서 담당하야 경성부에서 뎐한포수가놋는바법을 다배울때까지 연습할터이며 비용은 매일화약갑이사원식이오 포수두명은 잇서야할터임으로 아모리 경비를주린다하야도 일년에 이쳔원은 들터임으로 수일내에 곳림시협의회를열고 이에대한 추가예산을 결뎡할터이라는데 오포를놋는 긔구(器具)는 대포와 시계인데 그대포는 구식이되야 군대에서는사용치못할것임으로 이번에 경성부로 긔부가될는지 모르나 시계는 군대에서도 정확한것이 필요하야 과연시계까지 긔부를할는지 아즉모르겟스나 만일시계를 새로사드린다하면 역시쳔여원가량은 들터이나 여하간오정포소래는다시계속될터이라더라

公市의物價減下는

현상이상에더할수업다고

요사이돈은 귀한데 일용물건의 갑은 조금도 떠러지지아니하야 일본각디에서 물가를 조뎡(調停)할 방침을 연구하는중인데 경성에도 물가를 좀내리게할 필요가잇는것은 일반이 다짐작하는바이나 경성부에서는 부에서 측접관리하는 시내각공설시장에서부터 물가를 내리게할 필요가잇다하야 방금 연구중인데 원래공설시장의물가는 비교뎍보통상뎜보다 얼마간 헐함으로 지금시세에다 일할가량의 물가를 내리기는 심히매우곤난한사정이잇다한다 미개 공설시장의물건은 일할이나 일할오푼쯤 헐하게 파는터임으로 일할식 물가를 내린다하면 결국원가에서 오푼을 드리어밋지게되는 것임으로 공설시장의물가를 내리게하는데에는 판매하는물건을 경성에서 바더드리지말고 일본이나 기타원산디(元産地)로 측접 교섭하야 사드리지아니하면 판매가격을 더내릴수가 업슴으로 종래에 공설시장에상뎜을 내인 상인들이 련합하야 모조록싸게 바더드리어 판매가격을 내리게 하는것이 가장필요하다고 모당국자는 말하더라

白米는減下될듯

이삼일후부터

시내공설 시장에서는 지나간구일에시중에서 백미한되에 사십일젼식바들때에 물가를 내리게하야 한되에 삼십구젼 오리식바덧는대 요사이또시세의 쌀갑이 한되에사십젼 오리로 내리엇슴으로 수일을 기다리어 시세의쌀가가내린비례로 또쌀갑을 내릴터이라더라

當局의無誠意

물가를나리리다면 좀더헐허하라

공설시장의물가는 종력부터 일반시세보다 일할가량 헐하게 팔앗슴으로 이번에는 좀더에 물가를 나릴수업다함은 모부령당국자의 말이라하나 공설시장이 보통시장보다 헐하게 팔은사실이 잇는가 업는가함은 일반시민의 명백히아는사실이라 물가를내리다하는성의가 과연잇다하면 좀더실디의 연구를하고 로력을하는것이 필요할듯한데 말로만두어마되하다가 실증이나닛가 시장의상인이 스사로 협의하는것이 조흘듯하다는의사를 발표하얏스나 그럿치아니하야도 리익을탐하는것은 상인의 본색이어늘 부령에서까지 엇지물가의 나리기를 바랄수가잇스랴 이는 아모리 생각하야도 당국자가 물가를나리라하는 성의가 업는것이 분명하다하야 시민의 불평이 만흐며 좀더철뎌한 단속을하기를 바란다더라

芝罘에도怪疾

환자한명이발생

십삼일 상해(上海)에서 지부(芝罘)에입항한영국긔선 규안호의승객 중국인한명은 배안에서 죽엇는데 당디셰관(稅關)에서는의사 괴질로 인뎡하고 그배는 항구밧게 뎡박케하고 즉시예방에분주하며 다시환자가 발셩될 념녀는업스나 특디외의교통은 차단되얏더라(지부뎐보)

本町署巡査가

아편장이뢰물로 본서의취조바더

시내태평통(太平通)과당곡천뎡(長谷川町)근처에는중국인아편장이들이 만히사는데 오륙일 젼에도 본뎡경찰서 에서는 태평통(太平通)사는중국인장성춘(張生春)과 당곡천뎡사는서보산(長谷川町徐寶山)등두명을데포하야 취조한결과 의외에 당곡천뎡과출소 모조선인순사에게 혹뎐파하얏슴 오원식뢰물을 밧첫고 아편을먹엇노라 자백하얏슴으로 소관본뎡 경찰서에서는 당곡천뎡과출소에 근무하는순사 오모(吳某)를작십오일아츰에정복입은대로본서로 불너다가 취조한후아즉 돌녀보냇는데 원래권긔파출소에는 이전부터 그런일이 잇서서 지나간국장중순에도 그와가튼일이 발각되여 순사세명이면직을 당하고우물주걸 하얏다한다 씨악이독々덧는 중국인로동자에게 몃원식어더먹고 면직되는것은 별로칭찬할만한 일은못되것더라

土地所有權確認請求訴訟

재판당은중재코자 부령편에서는반대

의성(義城)에잇는박두인(朴斗寅)은대구부윤송정신조(大邱府尹松井信助)씨와 칠팔인을거러 대구디방법원민사부 (大邱地方法院民事部)에 토디소유권확인(土地所有權確認)등긔수속리행청구(登記手續履行請求)의소송을데긔하야 지난달 이십륙일에 데일회공판에 **사실심문**을하고 지난십일일에 다시데이회공판을 개뎡한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이소송은 대구인사의주목하는 사건임으로 시간전부터 방텽하는 사람이 모여와 방텽석은 만원이되여 립추의여디 업섯고 재판뎡에는 공긔가긴장하야 재판장(裏頭裁判長)과 배석판사(陪席判事)가 렬석하고 원고편에서는 빈구(濱口) 목미(木尾) 량변호사와 피고측에는 안본(岸本)변호사가 출뎡하엿는데 **증인으로** 불넌 젼명신녀학교장김도관(前明新女學校長金鍾均)씨외몃사람은 출석지아니하고 다만그학교교감 배두용(同校校監裵斗容)씨만출석하야 심문이잇슨후 히두재판장은 중재가되여 량편에 화해타협에 로력하엿스나 부령편의의사가 강경하야 결국 헛수고만하고 말엇다 다시 다음공판은 십오일에 개뎡한다는데 이사건이 장차엇지될는지 일반대구인사는 매우주목한다더라(대구)

法曹家를울니는法令

변호사의출장소는젼부렬폐

종래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사는곳에본사무소를 두고 각디방에 출장소를 두는터인데 지난륙월 십오일에 총독부제령으로 변호사가본사무소이외에 시내이나 또는디방에 출장소를 두려면조선총독의 허가를마트다는 규뎡이싱기엇슴으로 전조선 각디방법원에서는 이에까지 그디방변호사로서 다른곳에출장소를 둔사람에게는 속히그 출장소를 텰폐하도록 하얏고경성 디방법원 소속변호사들의 디방에 두엇든 출장소도 이삼월컨까지 모다렬폐하얏다는데 경성디방 법원검사국모씨는 말하되「경성디방법원검사국 소속변호사중 일본인의조선인을 합하야 삼십팔명이 디방에 출장소를두고 시내에데이사무소를 둔것이 칠십쳔에 이르엇는데 이삼년컨에 모다렬폐하얏소 변호사들 중에는 경성에 본사무소를 둔사람들이 평양이나 대구이나 부산 가튼곳에 출장소를둔후 변호사는 본사무소에만잇고 출장소에는 사무원을맛기는 일이잇고 경성시내에도 데이데삼의사무소를 두는일이 잇슴으로 그사이에 폐해가 적지아니하야 그러한 폐해를막고자 당국자는 이법규를데뎡한듯하오 이법규가발포되는동시에 종래허가를맛지아니한 출장소를 렬폐하라한즉 변호사중에는 우리의출장소는 그법률이나기컨에 싱긴것이닛가 법률이임의어든권리(旣得權)를침해할수업는것인즉 렬폐할수업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잇셧스나 그럿커 [illegible] 다렬폐하게 되엿다」고 우스면서말한다더라

「地獄室」을秘密調查

내무성경보당국의변장조사 / 복강단항숨여잇슨검거될듯

조선인로동자를 못살게 군다하는탄항(炭坑)과기타광산(鑛山)디방의 디옥실(地獄室)에대하야는경보국(警保局)의굴(堀)가등(加藤)량기사가항부의생활을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복강현항부서(福岡縣礦務署)관내에출장하야반달동안을 두고 산백여곳의광산에 들어가 디옥실을 자세히조사하는 동시에 유력한증거까지어더가지고 도라왓는데 복강광부서에서도 비밀히 활동을개시하야 다수한순시인(巡視人)을각탄항에 보내어모다 변장을하고조사를 개시하야 디옥실단속에대한구톄안(具體案)을작뎡하는동시에 모々탄항은 검거될지도모른다더라 (동경뎐보)

女教員被殺

대판부근에서 녀교원을죽여

십삼일 오후여덟시경에 경판뎐차(京阪電車)연선에잇는가우리뎡류장북편산에서 엇던녀자의슯히 부르지々는소래가 남으로뎡류장에 모혀잇든 사람들은크게놀나 그소래나는곳을 차저간즉 엇던이십사오세 가량되여보이는 젊은녀자한명이 전신에 **피투셩이** 가되여 [illegible]잇슴으로 그들은 즉시이사실을 소관배방(枚方)경찰서에 급보하엿는데 이급보를 접한동서에서는 즉시활동을 개시하엿고 또다시그날오후 엽시경에는 대판디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형사부(刑事部)로부터 뎐구(田口)형사과당(刑事課長)과 무뎐수색계당(武田搜索係長)이현장에출장하야 사실을 조사중인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그녀자는머리와몸통이 [illegible] 스며 또는 이마와얼굴과 기타 **팔구처**의 중상을 당하엿는데 낫(鎌)에찔녀죽은것은 사실이나 아즉범인수색에 대하야는아모단서도 엇지못하엿다 하며그녀자는 대판부 북하내군차권촌(大阪府北河內郡茨田村)에사는이권촌당(村長)으로 잇는가소풍지진(安所豊之進)의딸로 그곳 삼향촌소학교(三鄕村小學校)의재봉교사로다니는견강(絹江)(二二)이라는 녀자이며그는그곳여러사람에게 얌전한 교원이라고 칭찬을 밧든녀자로남녀간관계에 대하야는 이전부터 아모관계가업섯다더라(대판뎐보)

有力한嫌疑者

현장부근에서테포

그날오후 엽한시경에 경관대와 수비대는 현장에잇는 숩속에서 다리에피무든 대목의모양차린 남자한명을발견하고 즉시 수색본부로 인치하엿는데 가장유력한혐의자라하며 방금 엄중히 취조중이라더라 (대판뎐보)

犯人은農夫인가

혐의자는모다방송

녀교사견강(絹江)의참살사건은임의뎐보한바와갓거니와혐의자로데포되엿든두명은모다증거가불충분함으로곳모다방송되엿고 범인은필경부근농민인듯하며 현장에는 낫이 흘너잇슴으로 시체는 해부하여본결과 강간당한흔적은 업다더라 (대판)

三母子가投身

아들한명만죽고 모녀는구원되여

경상북도녕일군남면옥리김명택의처 김반월(慶北迎日郡南面玉里金明擇妻金半月)(三二)은구일오전 시경에 둘재딸순분(順粉)과 둘재아들 룡진(龍鎭)을다리고 그근처강에 가서 빠저죽으랴는데 김반월과순분은 구제되고 룡진은 빠저죽엇다는바 원인은 자긔남편이 어린아해를때리고 또사람과싸호는것이 미안하야 그러케 말을듯는자식들은 모다물에나 집어넛코만다고 다리고나가서 빠저죽으랴한것이라더라(대구)

前補助員의橫領

취조후에검사국

누른군복에 칼찬사람이면 싀골촌빈들이 사자가치무서워 하는 헌병보조원이라 그들이 무죄한 량민을괴롭게 구는데는 그와가치혹독하지마는 아조무식한자이만흠으로 그지업을 고만둔후에는여러가지 범죄에걸니는이 만타 경성부길야뎡이뎡목오십천번디차상호(京城府吉野町中村館)(二七)는이삼년젼까지 헌병보조원을 다니든사이에 삼작년에공갈 취재죄로 며칠동안 경성디방법원에서 취조를 밧고 불긔소가되엿고 그후금년 일월에는 사긔죄로 또다시 경성디방법원에서 취조를밧고 긔소유예(起訴猶豫)가되엿는데 그자는 그후 교림동 산십오번디(校林洞)에술장사하는 일본인암긔수길(岩崎秀吉)의집에 고용되여 여러군데로 술을닐너다 주고돈을거두는중 큼々히술갑 [illegible] 수백원을 바다서 모다써버린것이 주인에게발각되매 [illegible] 그자는 그후 부단히 도주하다가 서대문 경찰서에 데포되여 취조중이더니 작일검사국으로 보내엇다더라

西北豪雨繼續

의협한평양과영흥

수해를당한 함경도와 평안도에 련락은 십사일하오부터 도보련락으로개통되얏스나평양에는십사일밤부터 또비가와서 텰도의 수선공사도 중지되고 영흥(永興)디방에도십삼일에는 잠간개이엇스나 십사일에이르러 다시비가오기시작하야 일긔는 점々험악하야가고 뎍뎐천(赤田川)의증수는십사척이라더라

千餘件의電報

경성국의대분주 / 더위에어려운일

한참동안 폭우로인하야 각디의 뎐신선은고장이 자조잇서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에서는뎐신이답지하야 매우복잡하든바 요사이에는원산송강(元山松江)간의해저뎐선에 한곳의 고장이잇슬뿐이요 다른뎐신선은 다완전히회복되얏는데 요사이 뎐신을 취급하는수효를조사한바 [illegible] 뎐신을바다서배달하는 수효가 [illegible] 사백사십통에 달하야 평일에비하면 집수는약 삼사배이 [illegible] 배달에도 역시 만흔 [illegible] 보충신구채의 자뎐거의 [illegible] 보행배달부로 배달을하는중인데 일긔가요사이갓치 심히더워서는 배달에도매우 곤난하다더라

咸鏡線又不通

작일아츰부터

함경선(咸鏡線)은십사일부터개통되엿스나 다시작십오일 아츰부터 큰비로인하야 파정(巴亭)과영흥(永興)사이의선로가물에 잠겨불통되엿다더라(함흥뎐보)

大阪地方高熱

온도는구십구도반

대판(大阪)디방의 더위는 열하해만에 처음인데 십사일에는열도가 구십구도오분이되야 시민은더위에매우복개인다더라 (대판)

建築中의學校

뜻밧게불에 / 오십사간을전소

평남성천군 룡천면덕암리(平南成川郡龍泉面德巖里)의 유지김안종(金安鍾)씨의 발긔로 그면내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기로하야 방금오십사간의 큰집을짓는중 지난밤에 돌연히 불이나서 전소되얏다는데 원인은 아즉조사중이라더라(평양)

파리산이列車襲擊

일본군안의사상자는십오명 / 「포크라니치나야」부근에서

십사일에 합이빈(哈爾賓)으로 가는 렬차가오전네시이십분경 「포크라니치나」서편으로 약삼「웨르스트」되는곳에이르럿슬때에 돌연히 파리산과 중국관병의 복식을한 약오십명이 렬차를 습격하야 차를뎡지식히고 파리산떼면방은 차에뛰어들어 승객의수하물과 기타귀중품을 략탈하고 그렬차의뒤에 달녀잇는 일본부편렬차로 달녀가서 총질 [illegible]

腫氣로悲觀하야

한강에몸을던저 다행히즉시구원

작일오전여섯시경에 조선인 로동자한명이 한강인도교에서 뛰여나리는것을 그근처 사람들이 발견하고 소관룡산경찰서에 말하야 그경찰서에서는 경관과 경찰의사가 출장하야 구원한후에야 겨우사람이 낫는데 그사람은 경긔도리천군 마장면작리박재원(京畿道利川郡麻長面□□里朴在元)(二○)인바 [illegible] 다리에종긔가나서 서울와서 남대문밧 세부란스병원에서 치료하얏스나 병이 낫지아니함으로 세상을비관하고 물에 빠저죽으려든것이라더라

線路에泥醉客

렬차에치어즉사

십사일 오후열한시경에 호남(臨湖線)리々(細川)와디(地方)사이에잇는 철도우에 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남자한명이 술이취하야 누어잇는것을 맛츰 그때 그곳으로 진행하든 삼백이십이호렬차의 긔관수가 [illegible] 크게놀나 즉시차를 멈추엇스나 [illegible] 그의성명과 기타는방금조사중이라더라 (리々뎐보)

沙浴中에慘死

일사병에걸니여

[illegible] 지나가든중 매일 모래밧탕을 하는 [illegible] 양산의사장을 밧고 [illegible] 일사병에 [illegible] 죽엇는데 [illegible] 장당 김흥남(金興南)에게 [illegible]

鰱魚의中毒으로

동경시우입구원뎡삼뎡목(東京市牛込區原町三丁目) [illegible] 근등경일랑(近藤京一郎) [illegible] 중독되야 배가압흐고 비상히괴로움으로 그곳부근에잇는 의사를청하여다가진단한결과 련어의 중독으로 판명되엿슴으로 이사실을 소관경찰서에 급보하엿는데 [illegible] 다더라(동경)

海水浴中溺死

열살먹은아해가

충남홍성군 광천면봉양리 원취리(忠南洪城郡廣川面鳳陽里)의 [illegible] 당남 만순(萬順)(一○)은 작십오일오후 두시경에 바다에 멱감으러 나갓다가 기운이 진하야 빠저죽엇다더라 (홍성)

仁川에도溺死者

지난십사일 오후네시경에 인천월미도(月尾島)에서 바다에 인도교 저편물속에서 일본사람과 놀며 헤엄하다가 실수하야 빠저죽엇는데 이는 인천부외리 팔번디(仁川府外里) [illegible] 화정(花町)청수매오랑(淸水梅五郞)으로 판명되얏다더라(인천)

敗訴하고言戰

원고는벌금십원으로

작일오전 열한시경에 경성디방법원압헤는 사람이 수십명이나 모혀든중에 이십여세쯤된 젊은사람이 나와서 되는사람에게 함부로 욕을하는데 그리유를 뭇건대 그사람은왕십리(往十里)김명석(金命石)의아달 김[illegible]이오 따라는사람은손주삼(孫柱三)인데 지금으로부터 삼년젼에 손종삼이가 중국에가서 말을 사다가 고양군 숭인면 안심천리(高陽郡崇仁面安川里) [illegible]

黃金町小火

작십오일 오후 [illegible] 시경에 시내황금뎡이뎡목(黃金町二丁目) [illegible] 에서 불이나서 [illegible] 소방대의 출동으로 [illegible] 원인은 [illegible] 이라더라

上海學生에捐補

상해(上海)에 [illegible] 조선학생 [illegible] 조선제모주식회사(朝鮮製帽株式會社) 三十圓 [illegible] 八圓九十錢

逃走한娼妓

부집에서잡히어

시내 신뎡(新町)에잇는 [illegible] 의창기 [illegible] 그집에서 [illegible] 도주하얏다가 [illegible]

天氣豫報

十六日 天氣 晴 一時曇 [illegible]

溫度 十四日 最高 九一·八 / 十五日 [illegible] 八九·八

◉오늘의潮(仁川)◉ [illegible]

휴지롱 ◀본뎡관내모파출소의순사가 [illegible] 아편장이의 [illegible] 몃원식의 뢰물을 바다먹는일이 발각되여 본뎡서에서취조를바닷다한다 ◀이것이 만약사실이라하면 소위「경관의위신」을손상케하는일은 물론이오 중독자중에는 도리혀즐거하는자도 만하잇슬걸 잘못하면도리혀그의 흉천돈을 어더먹은셰음이 될것이다 ◀이와가치「순사가 아편장이의돈을어더먹고 범인을 숨기엇나」는 말이된다하면 순사는꼿아편장이 철도의 공범자는 아니될는지몰나 ◀[illegible] 청년 [illegible] 조라하는자들의집에서 먹이는 송아지는 뿔이한개반낫다하야 구경군이 모혀든다는대 ◀보통소는 머리좌우편에 뿔이나지마는 그소는 한가운데에 뿔이나서 곱비배기에도 불편하다고 ◀하는 년의하는일에도 잇다는 이가튼차착이잇거든 하물며 사람의일이리오 순사의 뢰물숨도이와가튼 일이 깅지

婦人良藥 [illegible] 혈기쓰

◀科學的으로最高程度를發揮한◀

主治 [illegible]

調劑 大盛堂藥房

同業者諸位에게

「모자各種」「仕入」 [illegible]

三省社

秋期補缺生大募集

速成部 高等,中等,初等 / 英語夜學部 高等,中等,初等 / 工藝部 木工,鐵工,印刷,寫眞

補缺試驗 九月一日

私立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學館

朝鮮關係 好評圖書 發賣元 京城本町一丁目 嚴松堂書店

朝鮮六法全書	安達大壽計	一八四
朝鮮不動產證明登記申請書式必携	早川保次	二六七
朝鮮書式大全	京城日報社	三三〇
朝鮮衛生法規類集	白石保治	三三〇
京畿道全圖	十字屋地圖部	一〇六

光山金氏族譜 方今印刷中 迅速修單 無至漏譜事 京城府光化門通十一番地

外耳鼻咽喉科 方奎煥醫院 電話二〇九 西大門町一丁目 (第一銀行跡)

第二回速成實習生大募集

東光學校 生徒募集

ClibPDF - www.fastio.com

女丈夫(녀장부) (四九) 雲人譯

황부위는 홍동이가 그귀엣지나 아니한가하고 여러번속 그는벌서 나간뒤이라 순팔을따라 드려가서 앗가홍동이와 거러안젓든곳에 거러안젓다. 순팔이는먼저입을열어

순「그런데 부위께서는당신이공화군의장관이시면서 웨─의병에 드럿든저녀를구원하려고하십닛가 하매 부위는물품스럽게

부「웨─구원하려는것이 아라부엇하냐 너가흔놈은 칭긴이다 바다먹엇스면 고만이지」

순「그것이야 그러치요마는이와가치 엄주한때에 반역하는사람을구원하여 내인다는것은 여간어려운일이 아니올시다 나로도 죽음을쉬웁잡고 하는일이닛가 형편을따라서는 이런한일을하느니보다도당신의처이러한일을한다고고지질을하는것이 더수가날는지도 모르지요」

한다 이것은부위를 소홀치아니한사람으로 녁이고 만일일이성사치못하면 밀고할뜻을 보히어

순「아─웨─황자 장미아씨가떠럿든뒤에 당신이 집으로 다니러가셧다가 당신이 장미아씨를 구원하려고하신다는 비밀주머니를 나에게 주면서 나는두말업시 장미아씨를 구원하야 내지오마는」

부「그비밀주머니는 곳장필원에게주엇다고 내가 허의사되어서 말하지안앗느냐」

순「그러면 잠간 생각하더니 순팔은 잠간 당신과 상의하야도 쓸데 업겟습니다 장필원이 드러와 장미와가치 이감옥에 갓치어셔 오늘저녁아니면 래일아츰에는 죽일터이닛가 그가차질 그비밀주머니를가지고잇다하면 나는이와가치 죽음을애를쓰고 이런일을할것입시 그를사형에 처하거던그후에 그의시데에서 비밀주머니를 쏘내어면 고만이지요당신하고 상의하는것은 고만둡시다」

하면서 어느듯이러나서 가려는 모양이라 부위는

「가마니잇서 장필원에게주기는하얏스나 그후그가 다시그 주머니를 나에게 주어서지금

사람이 부인의친정 혈속임으로세사람이 나누어먹기로하얏섯는데 문오와청삼이는길안습해안에서쇄거 죽엇습니다그것은 아마당신이 파오도주하실때 죽인줄아는데요」

순「아─니─당신이 죽이섯서도결단코원망은 하지안습니다 유산물니는데 결리적스럽은 지혼심각이잇섯스닛가도로혀당신에게 사례의말슴을하여야할터인데 당신이죽이지 아니하얏다하면문오와청삼이가 죽기때문에 웜계부인의 친정혈속은우리어머니는 나에게 그일을부탁하셧스닛가 죽내가 상속인이올시다 그럼으로 그주머니를달나는것은 결코 다른사람의것을달나는 것이아니요자긔의 것을자긔가 찻는세음이닛가 당신도 아니주시겟다고는 할수업지요 만일그비밀주머니를 그때로 주실수가업스시면 그돈잇는곳만 가릇처주어서도 조켓습니다」

부위는지금순팔의말하는 소리를듯던지 지금까지본 사정으로 헤아리든지 대강그주머니의 래력과 경위를짐작하겟슴으로

부「거짓말고만두어라 네가웜계부인의재산을 훔녀가질 놈이면서음부터 그비밀 주머니가 웨장미의손에 들어갓슬 리가 잇나」

이한마듸에 순팔이는 풀기가아조식기엇다

여긔지름을하려함인듯하다

부「나를밀고하야 수가날듯하거던 하고십흔대로하렴으나 나는 륙군장교이닛가 륙군에서처벌을 바들지어정 너의상관에게 처벌될리는업다」

순「아니오 아모리륙군인이라도─」

부「에─쓸데업는소리 짓거리지말고 네관원칭긴이 먹고십흔대답하야라 너가흔놈은도칙놈이되다가놋친놈이닛가칭긴만 먹으면데일이지!자!칭긴을 엄마나 주면조켓니 그외수를 말하야라」

순「그럿케 당신처럼 칭긴소리만 내세우시면 아모리악인이라도 좀말승엇줍기가 더러운데요」

하고 스々로자긔가 악인인것을 인증하는것도 우수웟다

부「흥─ 칭긴이란말이 듯기실흐면 입을씻긴다고나할가 하여간얼마나주면 되겟느냐」

순「아니요 얼마이라고 돈이나수자로 말슴할수는 업습니다다만는 장미를─아니 장미려은아씨를 구원하여 내이는대신에 비밀한말을 드린하옵니다」

부위는 일부러 못알아드른체하고 「무슨비밀을」

내가마타가지고잇다」

순「그러면지금가지고계십닛가」

부「무엇그럿케 번々치안케할리가잇나! 아모도모르게 감추어두엇지」

순「그러치만당신은 그속에잇는문서를읽어보셧겟지요」

부「의론도되기전에 지금그런대답은할수업다」

순「그러면이럿케 하십시다그비밀주머니와 장미아씨의 몸과 서로맛밧구기로」

부위는 처음부터 그비밀주머니를리용하야 순팔이의 마음을돌말의사이엇스나남에게맛흔물건을내마음대로다른사람에게준다고언약을하는것이 엇재도덕과의리에 더그러지는일인듯한 생각이난다 그주머니를주지아니하고드엇더케이말을변통할만한수가업슬가하고 잠간 생각하매순팔이는부위가심각한는양을보고필경 그주머니속에 월계부인의큰돈을둔곳이 쓰이어잇기때문에 부위가그욕심으로 욕심이난줄로알고 부지중더욱몸이 달아서

순「그러나 부위─네─로말하면그주머니는 당연하내가 차질권리가잇습니다 숨길것이 못되지요 그속에는 월계부인의유산돈곳이 긔록되엿고 그유산은나밧게 물녀바들 사람이업습니다 긔일가지는 문오와청삼이와 우리어머니 컴비셰

一洛의顯効는警察署와青年會가合同하야除蠅消毒을理里一圓에實施하야무서운蠅는非常히減少되얏다더라(益山)

信女學校敎授張驟氏等이各々留職으로數年間式을敎授하다가解職한後에再昨年七月에同敎會에서는時代의進步에伴하야完全한主日學校를創設한바校長金昌斗學監任李淳倫會計金昌奭書記崔昌順敎師崔昌完金永禧韓永錫金珍泰康文吳金昌汝諸氏가就任後諸般設備를大略完備하얏스나아직有望한데去十一日午後八時同敎會堂內에서母姉會를開한바朴淑子母親의祈禱康文吳氏의聖經朗讀任李淳氏의開會辭가有한後外부란스病院看護員監督徐修信女史의衛生講演又는各班學生의자미잇는演說과問答으로써同十時閉會

開城商友會總會

開城商友會에서는日昨第二回定期總會를該會館內에開하얏는바會長制를理事制로變更하는同時에改選된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理事長金東明 理事白啓基 崔正錫 林鎭煥 金奎昇 金鳳埼 李昌永 金文昶 河順杭(開城)

全仁川幼年野球

仁川의少年團으로野球界에名譽이有한虎蹯俱樂部主催로全仁川幼年(身長四尺三寸以下者에限하야參加를許함)野球大會優勝旗爭奪戰이去十四日上午九時부터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開會된바參加團은十三個團에達하얏스며觀光人도多數한中關係上少年及幼年이最多數로盛况中에競技가開始되얏는데下午四時外지五次對戰이有한바마참雨下로因하야不得已中止散會하얏다더라(仁川)

全南秋繭掃立良績

全羅南道의秋蠶掃立數는約一萬枚인대去一日부터發生을始한바十三日外지의經過는大體良好한中이라더라(光州)

大田郵便局竣功期

今年春부터大田驛前面에赤煉瓦二階建築工事中인大田郵便局은比較的迅步로進行되야來九月中에는竣功하고仍即移轉하리라더라(大田)

模範書堂落成式

黃海道瑞興郡禾回面慎谷里有志諸氏는同里에模範書堂을設立敎授中이든바校舍를增築修理하고去十日午前十一時落成式을擧行하얏는데此校舍增築에對하야義捐한人士의氏名及金額은如左

李康鉉三十圓 李炳亮、李運亨、李恒緖、李鍾晩、李鍾奎、李炳徹、李炳泰、李寬榮、李鐸源各五圓 李周榮、李蒙九、李炳行、郭仲根、郭鳳周各三圓 李炳旭、李炳俊、郭尙九、李敎亭、李炳福、各二圓 徐弼晏外七人各一圓(新幕)

所壁面私校進捗

井邑郡所壁面私立普校는同面有志諸氏의發起로本月八日委員總會의投票에依하야校長金嘉玄氏로推薦한바篤志家鄭濟昌氏는敎育事業에熱誠이有하야臨定醵金八千圓이完收치못할을遺憾히녀기어巨大한金錢을先當하얏다더라(井邑)

驪州水害狀況

今般洪水로因하야驪州金郡이悲慘한水害를當함은旣히略報하얏거니와人命、家畜、土地、家屋及其他破損損害가如左하다더라

一、家屋
流失三〇戶全潰一九一戶半潰一三六戶床上浸水三四五戶
一、人命
死亡者三名負傷者三名
一、家畜
死亡一〇八頭傷二頭行衛不明一〇三頭
一、畓
流失一、九三三反、埋沒五、九〇三反、浸水七、一九一反、作物被害高一七六、九八四圓
一、田
流失一、一八二反、埋沒二、一五四六反、浸水一、一五四反作物被害高七六、四六三圓
一、道路
破損一、一四七間埋沒及流失一、五六八間
一、橋梁
破損五六個所流失五六個所
一、堤防
破損三、九七六間決沒五、九四〇間
一、山嶽
崩壞二九八個所(驪州)

長城水利業認可

水源의豐饒로全南에서一指를屈하는長城郡의長城前面兩面에亘한平野는地味가肥沃하야禾穀栽培에適宜한處所이나灌漑排水의設備가不完全한所以로年々洪水의被害가不尠한바此를救治코저郡當局及地主의出願에係한水利事業의認可는近日下附되얏슴으로本年秋收後에는直히起工하야明年移秧期前에竣工할計劃이라더라(光州)

全南玄米檢查數

全羅南道의客月分玄米檢查成績은檢查總數一萬五十五叺內에서特等七百五十二叺一等十一叺二等二百五十三叺三等八千九十五叺不合格九百四十四叺이라는바特等米는榮山浦에在한東山農事株式會社全南支店의調製에係한者이라더라(光州)

各有志의水害救濟

利川郡清渼面長湖院里趙聖鎬氏는一千七百七十圓의巨額으로今般被水害每一戶에對하야十圓式捐助하고同里趙歷韓氏는被害者六百九十一人에게三日間供食하얏고清渼面長李憲敎氏는四百四十四人에게三日間供食하고益埼榮八歲氏는百名을三日間供食하얏다더라(利川)

崇一同窓會總會

光州私立崇一高等普通學校同窓會에서는八月十七八日兩日間同校樓上에定期總會를開하고任員改選과母校振興에關한討議가有하리라더라(光州)

瑞興學校敎育宣傳

米國人宣敎師徐路得氏의經營에係한光州郡極樂面瑞興主日學校에서는暑中休暇를機會로一般面民에게敎育思想을鼓吹키爲하야來十九日부터十日間各村落에巡回講演을한다더라(光州)

服部巡查의美擧

利川警察署에勤務하는服部金右衛門氏는七十圓에不過하는月俸으로今般被水害者에게現金五十圓을利川郡廳庶務課에依賴救濟하얏슴으로稱頌이多하다더라(利川)

主日學校母姉會

京城市內龍山幼年主日學校는十餘年前에세부란스病院長어비신博士의長男과同病院事務員李甲成氏가처음으로小兒會라하는名稱으로會集하기를始하야數年間敎授하얏스며其後繼續하야南門外敎會執事崔益進氏와運池洞貞

全南稻作平年

平年作이면二百萬石의收穫을豫算할수잇는全羅南道의本年度稻作은移秧期의日旱으로因하야前途의憂가不尠이든바爾來雨가幸히其時를不失하야漸次回復의運에達하얏슴으로今後經過만良好하면平年作은無疑이라더라(光州)

裡里一帶蠅群撲滅

全北裡里警察署渡邊署長及鄭警部는當地各青年會幹部一同을客月末同警察署內에招待하야茶菓로外懇談한바今後에는警察行政에對하야互相補助하기로圓滿協議하야는바今般第

主催 宣川基督青年會

第一回西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廿一、廿二兩日間
場所 宣川私立信聖校運動場
申込所 宣川基督青年會館
申込期日 八月十九日까지
申込組數 一團體 三組式
申込金 一團體에三圓式

後援 東亞日報宣川支局

培英校卒業生會

安岳郡龍門面東倉里培英學校는設立以來十七星霜에校名과如히培英事業에多大한貢獻이有한結果七十餘名의卒業生을養成하얏는바本月九日午後一時에同校卒業生親睦會를同校大講堂에開催하고會務를處理한後激熱한演說과親切한懇談으로同午後六時에散會하얏는데其決議事項과當選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決議事項
一、故校長表敎禎氏紀念의件
一、母校維持發展에對하야各其出捐의件
一、同校卒業生으로外內外地留學하는會員의還鄕할을機會로하야懇務會開催의件
當選任員
會長表永鎬 副會長宋錫觀 會計安國生 庶務達非 記者斗鎬 金錫周 司察洪日 四表利鉉 評議員臨時 四人(東倉)

沙里院學友總會

京義線沙里院에서는이미學友會를組織하얏는바本月十一日下午三時半에四山青年會館上層에서會를開하고金麗俊氏의司會下에李浩在氏의開會辭가有한後諸般事項을協議하고任員을改選하얏는데氏名은如左하다더라

會長金麗俊 副會長李喜在 總務崔元斗 幹事朴聖河 祖雷 李載淵 文藝部長李喜在 智育部長金東河 運動部長崔梓運 社交部長金麗俊 音樂部長鄭基憲(沙里院)

●中學開國委員上京 木浦에서中學校를設置코저有志諸氏의努

開城學生親睦總會

在京城開城學生親睦會에서는去九日正午에定期總會를市內東本町東部禮拜堂內에開하얏는대出席會員五十餘名이라 會長李時潤氏의開會辭로開會하고左와如히任員을改選後閉會하얏는대會長李時潤 總務崔謹明 記崔成鎭 文藝部長孫斗鉉 會計朴在東 運動部長林培翰(開城)

女子基督青年講演

鐵山女子基督青年會는去八日下午八時에當地敎堂에서講演會를開하고金明根女史의司會下에開會를宣言한後林嫁女史는婦女의責任을演題로一個時間하나님의經綸과그사랑이란題로各々熱辯을吐하고鄭鳳敬鄭의獨唱과合唱이잇슨後宣川幼稚院寄附金을募集하얏는대芳名은如左

鐵山基督青年會鄭鳳日無名氏林昌洽各十圓鐵山青年會鄭熙山女子基督青年會盧昌律各五圓金昇鉉鄭龍河金山根女史鄭昌順女史各三圓鐵山葡萄會史乘晳金濟瑞各二圓李信敬女史鄭聖運女史各一圓崔基和女史五十錢(鐵山)

留學生會討論會

晉州基督敎在外留學生會에서는創立以來第一回討論會를去七日下午九時부터十一時外지晉州基督敎禮拜堂에서鄭重根司會下에『家庭의主人은男子이냐?女子이냐?』란問題로討論이有하야盛况을呈하얏다더라(晉州)

培材軍의大勝利

培材高等普通學校『올배재』野球團一行은去七日에出發하야馬山에開催되얏든全鮮野球大會에參加하얏다가釜山大邱를經하야去十一日에太田에到着하야翌十二日에蒲鐵軍과相對로試合하야結局十六對零으로培材가勝利를得하얏다더라(太田)

茂長留學生懇親會

本地方에서各地에留學하는學生이三十餘名에達한바夏期放學에依하야歸里하야來着함을機하야靑年會主催로七月二十七日同會館內에外懇親會를開하고互相意見을交換하얏다더라(茂長)

學年延長請願提出

太田新灘津公立普通學校에서는從來四學年制이든바新敎育令에依하야六學年制로延長하야달나는請願을去四日에同地方人士二百餘名의連署로北面長宋元川氏가此를關係當局에提出하얏다더라(太田)

各地靑年團體

苦學巡劇到處同情

京城苦學生巡回劇團一行은本月七日群山에到着하야八日九日兩夜共히當地東亞日報支局與鮮日報支局敎育後援會共產青年會領南俱樂部盛京俱樂部靑年會外四團體後援으로群山公會堂에서趣旨의『希望의눈물』『社會劇』『旅路』이라는悲劇을興行하얏는데一般觀客은非常한同情金이有한바그氏名과金額은如左

群山學友留學生會金二十圓金玉花七圓金菊子六圓金洪斗朝鮮日報支局模播組合船運葬

漁業組合創設準備

平北宜川郡南面은南으로西海를接하고宜川邑을距하기約四十里이라面內及附近의漁業에從事하는者가漸次增加하야巨額의魚產을獲得하나아직如何한組合等機關이無함을따라無形中不少의利益을他에讓할뿐아니라漁業發展上障礙가有함으로此를當時遺憾이하든有志朴永采朴典采朴甲瑞林處鏡文德勳桂應等諸氏가漁業組合을設立코저目下會員을募集하는中해完成됨을따라南面三峰洞海岸에魚產取扱所를設定하고事業을擴張하리라더라(宜川)

●長淵天道敎隊上京 長淵郡天道敎隊延務에는八月八日에上京式을擧行하얏는데當日祝賀의名辭로金永淡日成鵬郭元瑞元熙秀魏輔國李永賢金德濬李希淵劉吉生吳元瑞朴永瑞諸氏의衛附金이有하엿다더라(長淵)

上京은本郡의報道에잇거니와當地人士는去十二日午後一時에當地公會堂에서協議한結果委員金相衍姜英奎朱良淡朴千植黃田司尙武宗恭長野虎太郎七氏를選定하얏는데右諸氏는十三日午前九時列車로上京하얏다더라(木浦)

主催 大邱運動協會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六七兩日間
場所 大邱南山町海星코ー트
申込期 八月二十二日까지
申込組數 二림三組式
申込金 一림三圓式
申込所 大邱西城町一丁目四大邱運動協會
抽籤日時 八月廿五日下午五時
(但選手는朝鮮人의게限함)

後援 東亞日報大邱支局

京城府 黃金館 ◎當十二日부터特選寫眞提供
悲劇 逃亡하는天幕 一卷 大活劇 鍵의 冬惡부리 一卷
活劇 國境의脅威 二卷
大活劇 晩秋의哀川 五卷
冒險活劇 사ー가스王 四卷
新派悲劇 拜金狂 五卷
(每日畫夜二回)

沙里院 洋服實習生大募集

一、男子百五十人 女子五十人
一、志願書接受 八月末日까지
特히今回入學生에限하야七月謝金을免除하고多大이特典을附與함
詳細는來問하시오 規則送呈
殖產洋行洋服敎習院
沙里院本町
長電話百三十八番 振替京城五二九五番

廣告
本店에서左記營業種目에依하야비록何種으로何種이라도取扱하나이다
營業種目 精米、海陸物委托販賣 各種貿易、倉庫業
鎭南浦府旭町 新井新藏商店 白 電話長四六番

辯護士朴志永法律事務所
馬山府石町一七四番地

六個月實習으로 月六十圓乃至三百圓의收入을得하는好職業
洋服裁縫裁斷法敎授
募集人員 男子百人 女子五十人
卒業期間 六個月
敎授料 一個月 金二圓
但詳細事項은本所에問하시요
實習敎授 李 裁斷敎授 林 女子專任敎授 金 監督 金
平壤府礡九里一四三 平安洋服實習所

仁川釀業組合
特別廉價迅速酬應은本組合의目的
仁川鹽業組合 公司

求業諸氏 의게
原料價貸與 一日收三圓特約店大募集
朝鮮總特約 友昇商會

ClibPDF - www.fastio.com